

마저

마지막 하나까지, ~마저

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것마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. 조차와 비슷하지만, 강조점이 ‘뜻밖이다’가 아니라 ‘다 없어졌다’에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명사	마저 — 변화 없음	희망마저
이/가 대신	함께 쓰지 않음	희망마저 — 희망이마저 (×)
을/를 대신	함께 쓰지 않음	친구마저 — 친구를마저 (×)
상황	달갑지 않은 일	친구마저 떠났어요
강조점	마지막 하나까지 사라짐	다른 것들은 이미 사라짐
다른 단어	마저 = 끝까지	남은 것 마저 드세요

■ 언제 쓰나요

마저는 어떤 명사에도 형태 변화 없이 붙으며, 이/가와 을/를 뒤에 겹쳐 쓰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

그 바탕에는 하나씩 소진되어 가는 연속이 있습니다. 다른 것들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이것마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: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. ‘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’는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.

조차와 마찬가지로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 씁니다. 차이는 미묘합니다. 조차는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뜻이고, 마저는 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.

마저는 ‘끝까지, 남김없이’라는 뜻의 부사로도 씁니다. 마저 드세요는 ‘남은 것을 다 드세요’라는 뜻입니다. 철자는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.

■ 예문

- 1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.
- 2 이제는 친구마저 제 말을 믿지 않아요.
- 3 비가 오는데 바람마저 불기 시작했어요.
- 4 몸이 아픈데 일마저 밀렸어요.
- 5 전기마저 끊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
- 6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렸어요.

■ 비교

조차

조차는 가장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경우를, 마저는 이미 바닥나 가는 연속의 마지막 하나를 나타냅니다.

물조차 없었어요. (물도 없었다) / 마지막 하나마저 없어졌어요. (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졌다)

까지

까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에 쓰지만, 마저는 달갑지 않은 일에 만 씁니다. 기쁜 문장에 마저를 쓰면 어색합니다.

선물까지 받았어요. (선물까지 받았다) / 친구마저 떠났어요. (친구마저 떠났다)

도

도는 단순히 더하고, 마저는 더하면서 ‘설상가상’이라는 느낌을 줍니다. 감정의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.

바람도 불어요. (바람도 분다) / 바람마저 불어요. (이제 바람까지 분다)

■ 주의

✗ 생일에 케이크마저 받아서 기뻐했어요.

○ 생일에 케이크까지 받아서 기뻐했어요.

마저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 씁니다. 반가운 일을 더할 때는 까지나 도를 쓰세요.

✗ 이제는 친구를마저 믿을 수 없어요.

○ 이제는 친구마저 믿을 수 없어요.

마저는 을/를, 이/가 뒤에 오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

✗ 아침에 물마저 마셨어요.

○ 아침에 물조차 못 마셨어요.

두 조사 모두 달갑지 않은 상황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는 물조차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므로 조차와 부정을 씁니다.